



대입 수능 원서접수 시작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 19일 전주교육지원청 원서접수처에서 응시생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리빙랩으로 길을 찾다

전주대, 전국 37개 대학 참여
네트워크 포럼 공동 주최
완산동 마을 공동브랜드
생활문화 상품 개발 등 발표
14개 대학 우수사례 공유

전주대(총장 이호인) 지역혁신센터가 지난 17~18일 대구 엑스코(서관)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리빙랩으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전국 37개 대학이 참여하는 제5회 대학리빙랩네트워크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된 이번 포럼은 행사 참여 인원을 제한하여 소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국 48여 개 대학과 공공기관에 생중계되었으며, 대학리빙랩네트워크 회장을 맡은 한동승 지역혁신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3박3일 동안 이루어진 리빙랩 세미나 중 전주대가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유한대학교 홍찬호 교수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관해 발표했

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협동조합의 배상순 운영위원장이 '그린 캠퍼스 태양광발전 사업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2일차 대학 리빙랩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김진성 교수가 '전주 완산동 마을 공동브랜드 생활문화 관광상품 개발 및 창업 연계 리빙랩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으며, 총 14개 대학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동승 센터장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학의 태양광발전 주제의 리빙랩의 직접적인 활동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내년 대학리빙랩네트워크 포럼에서는 2050 탄소제 시나리오를 위해 대학의 역량과 전문성,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일을 추진한 사례가 공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지역혁신센터는 2019년 지역혁신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전북지역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대학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국리빙랩네트워크, 전북리빙랩네트워크, 대학리빙랩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며 리빙랩의 연구와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박길진 초대 총장 추모 학술대회 원로와 연대 강화

원광대학교가 송산 박길진 초대 총장 추모 학술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원로교수 교단과 학계 원로 교수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원광대는 개교 75주년 및 송산 박길진 총장 열반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 추진을 위해 원로교수 교단과 학계 원로교수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2월 진행될 예정인 학술대회는 원로교수상연구원이 주관하며 '송산 박

길진, 원광의 빛'을 주제로 펼쳐진다. 간담회는 박맹수 총장과 송산 총장 자녀인 박시현 한국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박 총장의 가르침을 받은 교단과 학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학술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송산 총장 자료를 보완·정리와 방향성 설정 등의 방안이 공유됐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수집한 송산 자료의 정리를 비롯해 송산 총장 저서에 대한 설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뉴스

'하나뿐인 지구를 살려요'

청사 내 1회용품·플라스틱 제품 구매·사용 지양 등
도교육청,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지침' 제정
23일부터 청사 입구·징검다리 카페 입구에 안내문 설치

생태환경교육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보다 적극적인 지구살리기 운동에 나선다. 19일 도교육청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제정, 시행된 것을 계기로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 실천 내용은 청사 및 회의·행사 시 1회용품·플라스틱 제품 구매 및 사용 지양, 청사·회의·행사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화용 용기·접시나 식탁 등 이용,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 및 사무용 가구 구매시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청사 내 1회용 컵 및 배달 용기 반입 불가, 플라스틱병 사용 금지 등을 중점 실천 내용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각종 회의나 행사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오는 23일부터 청사 입구와 징검다리 카페 입구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종이 없는 회의를 운영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생활의 습관화를 위해 노력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아니면 늦는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냐 하겠지만 적도의 작은 나비 날개짓이 태평양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듯이 나의 작은 실천과 선택이 변화의 기원이 될 수 있다"면서 "지구를 살리는 가치 있는 행동 실천에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구살리기 실천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30% 줄이기, 장기미사용 메일 삭제, 채식식단 식재료 지원, 작은 화초 가꾸기,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정은성 기자

'새로운 학교가 온다'

오늘 KBS1 다큐ON서 방영
미령초 '마을농부학교' 등
지역 맞춤형 교육 사례 소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20일 다큐ON (KBS1)에서 '새로운 학교가 온다'를 방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 제작 지원한 '새로운 학교가 온다'에는 지역교육과정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이 담겨 있다. '새로운 학교가 온다'에는 학생이 살고있는 지역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 세종 연서초등학교의 '고라니를 살려줘', 전북 미령초등학교의 '마을농부학교', 덴마크 뤼센스텐 캄나시움의 '세계시민' 교육과정 등이 소개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주도로 개발하고 제공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전국의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실행해 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권한을 국가, 교육청, 학교 등으로 나누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교육과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부모, 시민, 학생, 교사 등은 국민이 함께 만드는 교육의 설계도"가 되어야한다고 하며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와 지역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권한을 같이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만 우리 아이들의 삶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은성 기자

강명병 의심되면 '1339'로

도교육청, 단위학교 수업나눔 활성화 지원

학생 배움 중심 수업나눔 워크숍... 수업 영상 관찰 등 구성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9일 '학생 배움 중심 수업나눔 워크숍'을 개최하고 단위학교 수업나눔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 현장에서 수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수석교사, 수업나눔 동아리, 교육실습협력학교, 희망교원 등이 참여하여 전주기전대, 한국전문대학원에서 분산 운영됐다.

주요 내용은 ▲수업 영상 관찰(6학년 도형·측정 단원) ▲학생 배움 중심 수업나눔 ▲수업 속 학생의 어려움 파악 및 지도 방법 찾기 ▲참관자 수업 성찰 ▲학생 배움 중심 수업나눔의 가치 공유 등이다. 일반적인 수업관찰과 수업협회는 수업자의 교수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학생 배움중심 수업나눔

은 수업 속 학생의 배움 과정을 관찰하고 학생이 가진 어려움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위학교에서 학생 배움중심 수업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수업성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